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두드림방문요양센터 교육용

응급처치란?

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**즉시 조치**를 취하는 것
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,
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
예를 들면 **119에 연락**을 한 뒤
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

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
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.

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- [질식]

1) 증상

- ①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 같아 보인다.
- ② 목의 하부나 배의 상부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보인다.
- ③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 주위가 튀어나온다.
- ④ 심하면 안색이 파랗게 된다.
흔히 말하는 "사래 들었다" 라는 경우도 해당된다.

2) 의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

- ① 의식이 있는 노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상태를 확인한다.
- ② 노인의 머리를 가급적 낮게 한다.
- ③ "목이 막혔습니까?", "말을 할 수 있습니까?"라는 질문을 하고 등을 두드린다.
- ④ 노인의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노인의 좌우 견갑골 사이를 계속해서 두드린다.
- ⑤ 효과가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이용한다.



검상돌기



★ 하임리히법

하임리히법은 노인을 뒤에서 안는 것처럼 하여 이물질이 구강보다 깊이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 폐쇄된 노인의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.

1. 방법: 대상자의 등 뒤로 다가가 노인의 검상돌기 하부에 시술자의 한 손을 주먹을 쥔 채로 대고 다른 손으로 그 위를 잡은 후 4~5회 상방으로 복부를 강하게 압박한다. 이러한 방법은 횡격막을 급히 상승시키고 기도 내 압력상승으로 기도내 이물이 밀려나오도록 한다.
2. 유의사항: 복부와 흉부의 내부 장기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부 장기손상의 확인 과정이 요구되며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만 시행한다.

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- [질식]

3) 의식이 없는 경우 대처방법

- ① 노인을 옆으로 눕힌다.
- ② 어깨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좌, 우 견갑골 가운데의 등을 계속 두드린다.
- ③ 흉복부에 압력을 가한다.
- ④ 노인을 위로 향하여 반듯하게 눕힌 다음 가슴 옆구리 아래에 양손을 놓고 가슴을 쥐어짜듯이 압력을 가한다.
- ⑤ 무의식 노인의 경우 음식이나 약을 주지 않는다.
 - 무의식 노인은 의식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연하 반사나 재채기반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
노인의 입에 약이나 음식을 넣으면 호흡기로 이물이 들어가 기도 폐쇄나 흡인 성 폐렴을 일으키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.
- ⑥ 구강 내 이물 제거는 의치가 있는 경우 꺼내고 노인의 아래턱을 잡고 입을 열어서 손가락으로 꺼낸다
- ⑦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목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헛구역질이나 토하게 한 후
이물이 보일 때 손가락으로 꺼내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.

질식 유형	대처 방법
의식이 있는 경우	• 의식이 있는 노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상태를 확인한다. • 노인의 머리를 낮게 하고 견갑골 사이를 두드린다. •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. ※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위에서 안고 대상자의 검상돌기 아래 부위를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주먹을 감싸고 힘껏 밀어올림. 4~5회 강하게 압박하여 이물질을 밀어 올리는 작용
의식이 없는 경우	• 노인을 옆으로 눕힌다. • 견갑골 가운데를 두드린다. • 흉복부에 압력을 가한다.

심폐소생술



- **의식의 확인** : 돌아 눕힌 다음,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큰소리로 “여보세요” 라고 외치면서 반응을 확인한다.



- **구조요청** : 의식이 없다고 확인되면 즉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
심폐소생술



- **가슴압박** : 가슴의 정 중앙에서 약간 아래 부분을 압박한다.
가슴압박은 1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.



- **기도유지** : 한 손을 목뒤에 놓고 다른 한 손을 이마에 댄 후, 목을 들고 이마를 밀면 목 부위가 뒤로 젖혀진다. 목이 젖혀지면 이마에 있는 손은 그대로 둔 채, 목 뒤의 손을 빼내어 턱 끝을 들어올리면 기도가 열린다.

심폐소생술



- **호흡확인** : 환자의 입과 코 근처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지 숨결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를 관찰한다.



- **인공호흡** : 기도가 잘 유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.
호흡, 기침, 손발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심장이 멎은 것으로 판단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한다.

응급상황 발생시 요양보호사의 원칙

- 요양보호사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한다.
-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.
- 대상자의 부상 정도 및 상태를 잘 관찰한다.
- 신속히 구급차를 부르거나 의료진에게 연락한다.
- 대상자를無理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안정시킨다.
- 체온 유지에 힘쓴다.
- 부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대상자에게 부상부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심한 출혈, 복부손상, 무의식,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음료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.
-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, 약물,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보존한다.
- 대상자가 심신의 위안을 갖도록 돕는다.
- 요양보호사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.